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마시는 차 떨어져 급히 서두릅니다"

차를 기다리는 절박한 추사의 마음은 그의 편지에 자주 등장된다. 특히 제주와 북청 유배 시절, 그리고 강상에 머물던 시기에 초의에게 걸명(乞茗: 차를 보내달라는 글)을 청하는 글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운한 시절을 보낼 때, 차를 통해 얻은 위안이 컸음을 의미한다. 때로는 차를 통해 그리운 벗, 초의와 소통했고, 울분을 삭이는데 차만한 것이 없었다. 넓은 품을 지녔던 차의 효능은 그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따라서 초의의 수행력이 투영된 '초의차'는 추사의 어지러운 주변을 정화하기에 족했으리라. 이번 호에 소개할 편지는 〈나가묵연첩〉과 〈영해타운첩〉에 모두 수록된 것으로, 초의에게 보내는 그의 걸명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나가묵연첩〉에 수록된 사연은 이렇다.

겨우 박아 편에 편지를 부쳤습니다. 아직 (편지가)바다를 건너가기도 전에 뜻밖에 영남에서 온 스님이 찾아와 그대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 노련한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고 편하다는 근황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대나무는 푸른빛을 더하고 연꽃잎에 향기로운 바람이 스치는 이때에 그리움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대가 머문 곳이 바로 극락국토이니 아미타불을 수없이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래 편지도 차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차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대도 아는 일입니다. 그대가 손수 법제한 차는 당연히 해마다 보내주시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흥사)寺中에서 만든 소단 30~40편 중에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파공(소식)이 말한 거친 차 잎으로 만든 차도

도판은 〈나가묵연첩〉. 추사의 친필 편지다.

"대흥사 소단 30~40편 보내주오"

추사, 불운한 시절 차로 위안 받아

"연꽃잎 향기에 그대가 그립소"

청공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박생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먼저 인편을 물색하여 김용성이 있는 곳에서 편지를 가져갈 것을 상의하여 빨리 부치면 어떻겠습니까. 마시고 있는 차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급히 서두릅니다. 포장은 과연 더 없이 진귀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신선 세계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겨울이 되면 다시 저를 위해 한 단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리지도 않느냐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오래 두어도 맛이 변하지 않아 작년에 보내온 것을 여름까지도 상에 올릴 수 있으니 참 신기합니다. 나머지는 그만 줄입니다. 가을 7월16일

(纔因朴雅付一椷 尚未渡海 嶺衲意外見訪 並致法椷 藉悉老熟梵況 清淨輕安 竹深荷凉 不勝神湊念念 師之住處 即一極樂國土 何必千萬億聲阿彌陀耶 原書亦以茶懇矣 此中茶事甚艱 師所知耳 師之自製法茶 當有年例 不必更言 寺中所造小團三四十片 稍揀其佳 惠及切企 坡公所云麤芽茶亦足充淨供耳 若待朴生再來時 恐有太婉晚之慮 先圖信便於金瑢性處 速付如何如何 所喫將罄 如是揎急耳 泡醬果是無上珍味 是自香積界中來者耶 再於冬後 另爲我造就一缸 是願是願 無以無厭誚之 果經久不損味 前年所來者 能到夏登盤 甚異甚異 餘留不宣 秋七月既望 泐續具)

제주 시절 비교적 안정된 추사의 마음을 드러낸 편지이다. "대나무는 푸른빛을 더하고 연꽃잎에 향기로운 바람이 스치는 이때에 그리움을 가눌 길이 없다"고 한 내용에선 그의 여유로운 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차 재촉은 거듭된다. 대흥사 사중에서 만든 작은 덩이차 30~40편을 구해달라고 한 것 이외에도 "마시고 있는 차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급히 서두릅니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차를 보낼 인편으로 김용성이 있는 곳에서 상의하라는 내용도 보이는데, 실제 이 내용은 〈영해타운첩〉에는 "김모가 있는 곳에서(先圖信便於金某處)"라 하였고, 〈나가묵연첩〉에는 김용성으로 표기된 것이 조금 다르다. 한편 초의는 차 이외에도 진미의 포장(泡醬)을 보내 추사를 위로하였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개안광명은(開眼光明) 부처님이 가르쳐 준 일생의 업"

손경수 봉사단장(김안과병원)

김용란 부원장 (김안과병원)

김용란 부원장(사진 왼쪽)과 손경수 단장은 불교와 봉사활동에 있어서 멘토(손경수 단장)와 멘티(김용란 부원장)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김안과병원 봉사단을 이끌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부처님 법을 공부해오면서 항상 아름다운 회향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몸담던 개인병원을 그만두고 지인 소개로 2000년 김안과로 옮겨 개인병원서 별필요가 없어 하지 않았던 수술을 다시 배우며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손경수 봉사단장)

"손 단장을 통해 불교와 봉사의 참 뜻을 배웠습니다. 제가 손 단장님께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50세 초반부터 순전히 봉사를 위해서 20대 초반의 자식같은 레지던트 수련 의사들과 똑같이 수술법을 배우고 치열하게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단장님은 사람이 복을 먼저 지어야 복을 받는다고 평소 강조하셨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법을 실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란 부원장)

2007년부터 펼치고 있는 김안과병원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의 두 주역인 손경수 봉사단장(61)과 김용란 부원장(52)은 봉사 즉 보시행이 곧 부처님 가르침의 총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단장의 봉사활동은 1998년 이주노동자 주말 진료부터 시작된다. 캄보디아 해외봉사전까지 10년간 계속됐다. 틈틈이 해외봉사도 2005년부터 다녔다. 몽골을 시작으로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등지서 의료봉사를 했다.

손 단장은 "김안과병원 해외봉사팀이 주로 가는 곳이 캄보디아인데 이는 우연히 인연을 맺게됐습니다. 원래는 2007년 스리랑카로 봉사를 떠날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서 폭탄테러가 일어났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아 행선지를 바꿔서라도 갈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됐지요. 제가 여러 해외봉사단체에 전화를 돌렸는데 로터스월드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봤더니 그쪽 해외팀장이 김안과병원 환자였더라구요.(웃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가 마침 2006년에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센터'를 완공했고, 그 안에 김안과병원 진료소를 마련해 줬다. 김안과병원 역시 그 진료소안에 2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증해 수술까지 가능하게 했다.

김용란 부원장은 "캄보디아는 의사, 약사 면허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처방을 잘못 받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외국기관의 무료 의료시설이 생기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래서 응급환자부터 치료를 선별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손 단장이 말을 받는다. "처음에는 시설이 열악해 책상을 이어붙여 수술대를 만들고 스탠드를 수술조명으로 썼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해부터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해 간신히 진료실은 갖춰졌지만 평상시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이유는 캄보디아를 통틀어 안과의사가 2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중 절반은 수도인 프놈펜에 있어 이 곳 시엠립에서는 의사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고용 한다해도 의료수준이 낮아 진료가 어렵습니다."

손 단장이 이끄는 김안과병원봉사팀은 2007년부터 시작해 올 3월까지 16회째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1회에 의료진 5명을 포함해 15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그동안 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백내장 수술 800여건, 익상편을 포함한 기타수술 500여건 등 총 1300여건에 달하며, 외래환자 진료만 총 2만여명에 달한다. 캄보디아는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에 위치한 태양이 아주 강열한 나라다. 한 낮에는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기조차 힘들다. 때문에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백내장과 익상편 환자(눈의 흰자위가 점점 자라서 검은 동자를 덮어 시력에 영향을 주는 병)가 많고, 환자들 상태도 한국보다 심각한 편이다.

손경수, 봉사위해 50세부터 수술법 익혀

김용란, 캄보디아 의료봉사 물심양면 후원

2007년부터 총 16회 캄보디아 무료진료

백내장 수술 8백여건 등 총 1300여건 성공

"맹인들 시력 되찾아 좋아할 때 큰 보람"

내년 KOICA와 프놈펜에 병원 공동 건립

김안과병원 봉사팀이 현지서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환자들에게 약 처방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수술실과 수술 장비를 갖춰 백내장과 익상편 수술도 하는 것이다. 또한 돋보기 및 의안도 제공한다. 이미 이곳 사람들에게 김안과병원 의료봉사는 보이지 않는 눈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간혹 다른 곳에서 수술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김용란 부원장은 그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고 찾아 왔으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줄 텐데 이미 수술을 한 눈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술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 손 단장은 "주로 하는 수술이 백내장인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머무는데 수술기구가 한 대 밖에 없어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계속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봉사 현장에 가면 팀원들을 절대 쉬지도 놀지도 못하게 엄격히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봉사 갈때마다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단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를 해야한다는 마음에서죠. 이렇듯 봉사는 자기희생이 있어야만 온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봉사자가 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최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봉사 떠날때마다 비용과 시간을 모두 완벽하게 후원해 준 김안과병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용란 부원장도 한마디 거든다. "손 단장님이 우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는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 봉사는 있었지만 해외의료봉사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손 단장님의 원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지요."라며 손 단장을 칭찬한다. 이어 김 부원장은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안과병원의 창립이념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병원 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의미와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우수한 의료진이 많은 우리 병원은 해외봉사활동시 최상의 의료진들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의료봉사 역시 김안과병원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인터뷰 도중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평생 앞 못 보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보람을 맛보기 위해 힘들지만 봉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답으로 어떤 환자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 봉사팀에 쌀과 망고열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들도 뭔가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아서 그 마음만 받지요."라며 환희심을 펼쳐 보였다.

사실 두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다. 아마도 두 의사가 펼치는 봉사도 불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평생의 업(業)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불교와의 인연을 묻자 김 부원장은 "외할머니가 100일기도를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불교집안에서 자라 정서는 있었지만 특별히 신행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2년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법륜 스님의 수요법문을 듣고 정토회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에 나가 공부하게 됐지요. 지난해에는 법륜 스님과 함께 인도 봉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손 단장님 권유로 매일 아침 21배를 하다가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108배를 합니다. 절 수행을 한다고 심적 변화가 금방 오진 않지만 가족들과 환자를 대할 때 이해심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게 느낍니다. 사실 의사 생활을 계속하면 냉정해지는 면이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이 생겼지요." 이어 김 부원장은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마음프로그램인 '깨달음의 장'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걸 내려놓는다는게 바로 이런거구나 체험하게 됐지요. 그리고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손 단장도 불교와의 인연을 얘기했다. "저는 사찰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기도하며 신행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108배 수행을 하고 있지요. 불교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불자라면 보시행을 펼치는 것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니 내 자체가 한낱 망상덩어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돼기로 서원을 세웠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동네 안과서 간단한 치료만 했거든요. 결심이 서자 김안과로 자리를 옮겨 백내장 수술법을 열심히 배웠지요. 50대 초반이었지만 20대 젊은 친구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출근도 남들보다 일찍하면서 어시스턴트도 마다 않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익혔습니다. 해외의료봉사에 꼭 필요한 백내장 수술법을 배워야 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를 회고하던 손 단장은 다시 말을 잇는다.

"저는 수술 할 때 움직이는 환자의 눈을 보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죠. 의료사고를 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처님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수술실에서 제 내면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히려 일체망상과 잡념이 없어져서 편안해집니다. 수술과 수행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삶의 습관도 생겼어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이럴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하고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는 계속 할 것이라는 두 의사 보살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프놈펜에 병원을 건립할 예정인데 여기서 현지의료진들을 교육시켜 병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외국인 설립자가 세운 세브란스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웠듯이 체계적인 병원시스템을 구축해 미니 김안과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말씀처럼 우리 김안과병원이 캄보디아의 세브란스병원 처럼 맹활약을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07년 3월 다문화가정 무료개안수술 후 환자와 기쁨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용란 부원장(사진 왼쪽)

손경수 단장(사진 오른쪽)이 2011년 10월 캄보디아 의료봉사서 환자를 검진하고 있다.

전법일기

어르신들은 무엇을 원하나

어르신들을 위한 단체 영화관람

아마 2009년 2월 말이었다. 울산 해남사 주지 스님이 내게 전화한 게. 만초 스님은 신도들과 영화 〈워낭소리〉를 단체관람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다면서 우리절 신도님들도 모시고 가라고 권했다.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극장의 담당과장을 만나 무료급식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람자의 수가 적은 화·수요일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람하는 조건으로 1인당 2천원씩으로 할인하되 200명 이하에는 무조건 200명의 관람료를 내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2천원씩 추가하기로 했다.

영화관람 당일에는 관광버스를 세 대 빌리고 생수 한 병씩과 삶은 달걀 2개, 찰강냉이를 한 봉지씩 비닐백에 담아드렸다. 원래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처음엔 난색을 표하더니 마지못해 원칙을 깨고 허락하여 주었다.

그날은 딱 200명이 극장에 동행했다. 어르신은 170명, 나머지는 우리 젊은 신도였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일일이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혀드렸고, 어두운 곳에서 발을 헛디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나는 스크린 앞으로 나가서 어르신들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서 앞으로 매년 봄·가을로 영화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소리 내 웃기도 하고, 때로는 혀를 끌끌 차기도 하면서 영화를 보셨다.

영화가 끝난 뒤 어떤 어르신은 "평생 극장에 처음 와본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면서 "40년 만에 왔다"고 감격스러워 하셨다. 어떤 분은 부모 생각으로,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생각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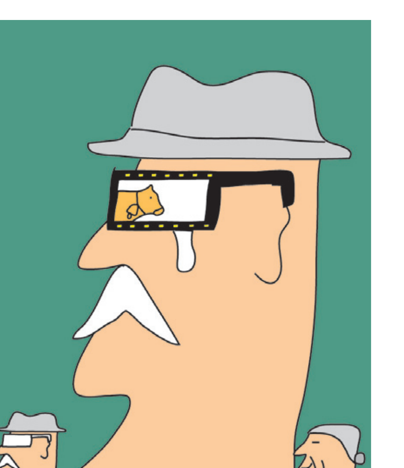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다섯 차례 단체 영화관람 마련

공양과 여흥거리 더 좋아해

그 이후, 봄·가을만 되면 나는 영화를 고르느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어르신들의 영화는 제약이 많았다. 자막을 보기 어려웠으므로 외화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영화를 골라야만 했다.

두 번째 영화는 이순재, 장동건, 고두심이 주연한 〈굿모닝 프레지던트〉, 당시에는 신종 플루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버스 출발 전에 어르신들의 체온을 재어 신종 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가자 전원에게 영화관 입구에서 세정제로 손을 세척하게 하였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마스크를 드렸다. 이듬해인 2010년 봄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하모니〉, 가을에는 코믹영화 〈불량남녀〉, 2011년 봄에는 노년의 사랑과 애환을 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보여드렸다.

나와 신도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00명이었던 참석자가 173명, 130명으로 계속 떨어지더니 마지막엔 7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에는 봉사자들도 제법 되었으므로 실제 어르신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1년에 두 번 영화를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으나 어르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르신 공양일에 맞춰 영화관람을 하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공양만 하시고 극장행 관광버스는 외면했다. 왜 극장에 가지 않으시냐고 어르신들께 여쭈었더니 "경로당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고도리 치는 게 더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어르신 영화 단체관람은 다섯 번으로 마치고 말았다.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수순중생원(隨順衆生願)이 있다. 이웃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려면 공양 후에 새를 잡도록 화투를 몇 벌 갖다드려야 할 텐데, 그럴 순 없지 않은가. 절에서 뭔가를 하는 것, 참 어렵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敎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 보급형 위패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